

# 추석 차례상 비용 예년비해 소폭 하락

전통시장 22만8632원 vs 유통업체 31만5905원

무·배추·시금치 큰폭 하락·배·쌀 등 상승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예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올해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2만8632원, 대형유통업체 31만5905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0.7%, 3.4% 하락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기준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28개 품목 중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17개이며, 상승한 품목은 각각 11개로, 하락한 품목이 상승 품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배추·시금치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출하시기가 아직 이른 배와 생산량이 감소한 쌀, 쌀가공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aT는 추석을 앞두고 가계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 29일과 9월5일 두 차례 더 추석성수품 구입 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명근 aT 유통정보부장은 "aT가 제공하는 알뜰소비 정보를 활용해 올 추석에도 합리적인 명절음식 구매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엔 오래간다”

이번 日 불매운동이 과거와는 다른 8가지 이유

“이번엔 다르다”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평가다. 어느 때보다 불매운동의 규모가 크고 꾸준한 데다 성숙도와 자발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그 역사가 깊다.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교양학부)는 25일 <뉴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일제 불매운동은 가장 화려하게 세고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다”며 “과거와 다른 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능숙한 90년대생이 재미있게

로 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자 일본 여행 불매 움직임이 더 확산했다.

개인의 신념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트랜드가 확산한 점도 이번 불매운동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한국 불매운동이 곧 식을 것”이라는 유니클로와 DHC 등 일본 기업의 발언도 불매운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 불매운동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 일본식 표현이나 일본 상품이 깊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문화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이 아닌 시민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네티즌·시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유쾌한 놀이’처럼 전개  
일본 제품 ‘안사고 안팝니다’...일본식 용어도 우리말로 순화

불매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불매운동은 시민단체 주도로 ‘마일드제브 화형식’, ‘일장기 화형식’ 등 다소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맥주 마시지 마시다’가 아닌 ‘일본 맥주 한 잔에 100만원에 팝니다’라며 재치있게 불매운동을 알리고 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도린 경제 보복이니만큼 ‘일본 여행 안 가기’라는 목표에 집중해 일본 경제에 확실한 타격을 주려 한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일본 규슈 지방의 사기현 지사가 “한국 항공편 감소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시민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 각성해 안전 등 소비자 이슈가 아닌 정치·외교적 이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성숙도도 한층 높아졌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서울 중구청이 ‘노재팬(No Japan) 배너를 설치하자’ 시민들이 항의의 일이었다. 서 교수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불매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일본 쪽에서 역공할 발미를 제거하려 했다”며 “이성적이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873회차 당첨결과 (2019년 8월 24일 추첨)

3 5 12 13 33 39 + 38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0	1,875,553,2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8	45,944,93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75	1,315,47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3,684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2,001,91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간연장)

## 광주시, ‘첨단롯데슈퍼 주상복합’ 39층으로 제한

시 건축위원회 40층 미만으로 조건부 통과...에초보다 10층 줄어



첨단 롯데슈퍼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설 광주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들어설 첨단지구 롯데슈퍼 주상복합 건축물 높이가 39층으로 제한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건축위원회를 열고 롯데산개발이 추진 중인 ‘첨단 롯데슈퍼 주상복합’ 건

축계획을 40층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부 의결했다.

롯데슈퍼 주상복합은 애초 49층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교통심의 과정에서 2개층이 줄었고 이번에 40층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모두 10개층이 줄어든 39층이 됐다.

앞서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주차 문제 등을 들어 47층으로 줄일 것을 롯데산개발 측에 요구했다.

롯데산개발은 인근 쌍암공원에 1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세워 기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첨단롯데쇼핑몰 입점지 대책위원회’는 “롯데가 소유한 땅도 아닌 공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라며 “주차타워를 지어도 롯데슈퍼 일대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시는 그동안 광전동 주상복합 건축물(48층), 누문동 정비사업(46층), 쌍암동 주상복합(43층) 등 나홀로 아파트·주거단지 개발이 기존 도심지 경관체계와 어울리지 않고 일조, 통풍, 교통문제를 유발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해진다고 분석했다.

건축물 높이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만 적용하기 때문에 도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얼마든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교통·주거환경의 부정적 영향, 기반시설의 부족, 도시경관과 주변 주민의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용적률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민선7기 들어 상업지역 내 가

로구역 높이 지정은 통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 상업지역내 고밀도 건축물을 제한하고 본래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을 유도해왔다.

도시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경관과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북구 문흥동 주상복합, 화정동 주상복합 등 40층 이상 건축계획 신청 건축물에 대해 40층 미만으로 높이를 제한해 왔다.

이번 건축심의도 민선7기 도시정책 철학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고층 건축물의 제한과 함께 획일적인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공동주택 심의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순환적 재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해나갈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장은 “향후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개정해 일반 주거단지 30층 미만, 주상복합 단지는 40층 미만으로 높이를 관리해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디자인 도시 광주로 나아가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시·건축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산개발과 롯데슈퍼는 지난해 12월7일 쌍암동 롯데슈퍼 광주첨단점 자리(8779㎡·약 2660평)에 연면적 9만8866㎡(약 2만9950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광산구에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지하 6층 지상 49층에 전용면적 84㎡(약 2평) 아파트 414가구와 롯데슈퍼, 영화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높이는 애초 150m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층수를 조정하면서 120m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교통영향평가와 시 건축심의를 거친 롯데슈퍼 주상복합의 최종 건축하는 광주 광산구가 내린다.

## “이젠 대형마트도 제로페이”...이마트, 전국 도입

이마트가 ‘제로페이’(Zero Pay)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마트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 빼에로쇼핑 등의 매장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이마트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매장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에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제로페이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면, 포스(POS)

단말기로 스캔하는 방식이다.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SG PAY 등 약 21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제로페이 기능에 계좌를 등록하고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특히 제로페이는 이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보다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 반영을 포함해 제로페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